

# “현장에서 통하는 기술”...충남도립대 건축인테리어학과, 2년 연속 금상

✎ 한기섭 기자 | ⓒ 승인 2026.04.12 09:37

실내장식 금은상 동시 석권...가구 부문까지 성과 확장, 실무교육 경쟁력 입증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는 20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

충남도립대학교 건축인테리어학과가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2년 연속 금상을 수상하며 실무 중심 교육의 성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단순한 수상 실적을 넘어 교육 방식 자체의 경쟁력이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2026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실내장식 부문 김현우 학생이 금상을, 김기창 학생이 은상을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금·은상 동시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여기에 올해 처음 출전한 가구 부문에서도 송의현 학생이 은상을 추가하며 성과의 폭을 넓혔다.

이 같은 결과는 단기간 준비가 아닌 체계적인 훈련 과정에서 비롯됐다. 학과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목표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겨울방학 기간 동안 실무 중심 특별 훈련을 집중 운영했다.

학생들은 제한된 기자재와 환경 속에서도 도제식 실습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현장 중심 교육과 반복 훈련이 결합된 구조가 경쟁력을 만들어낸 셈이다.

지도 교수진과의 밀착 훈련 역시 성과를 뒷받침했다. 단순 기술 습득을 넘어 협업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요구하는 훈련 방식이 실제 대회 환경과 맞물리며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승일은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속에서의 성장"이라며 "학생들이 협력하며 끝까지 완성도를 높여 간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성과의 핵심은 분명하다. 기술 교육은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이고 그 경쟁력은 반복된 훈련과 실무 중심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다.

2년 연속 금상이라는 결과는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교육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다.

이제 무대는 전국이다. 수상자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충남도립대학교의 실무 중심 교육이 더 큰 경쟁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 그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기섭 기자 [hkstnt@naver.com](mailto:hkstnt@naver.com)